

광주 아파트 10년새 70% 늘었다

택지개발·재건축 잇따라... 지난해 34만4,561호

단독주택 비중 25%로 급감 12만3,700호 불과

지난 10년간 광주지역의 아파트 가구 수가 70% 가량 늘어난 반면 단독주택은 지난 2002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등 지역 내 주택시장 형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수완지구, 하남2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도심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향후 단독주택의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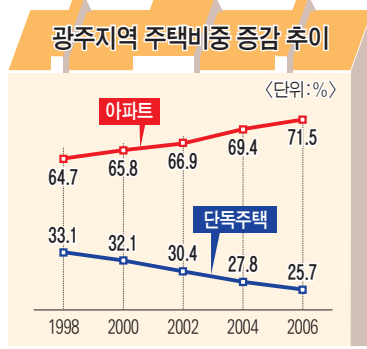
23일 광주시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의 아파트 가구 수는 34만4천561호에 달한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1996년(20만5천759호)에 비해 67.5%(13만8천802호)나 급증한 것으로, 광주 전체 주택(48만1천984호)의 71.5%를 차

지하고 있다. 광주의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단독주택은 현재 12만3천700호로, 10년간 0.4%(442호)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다. 또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36.6%에서 25.7%까지 급감할 만큼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처럼 단독주택의 비중이 급감한 것은 주거여건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떨어지는 데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투자가치까지 급락하면서 사실상 신축이 중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단독주택은 2002년 12만5천81호로 정점을 찍은 뒤 ▲2003년(12만4천814호) ▲2004년(12만4천653호) ▲2005년(12만4천306



호) 등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지자체별로는 광주시 동구의 단독주택 비중이 67.5%(2만6천352호)에 달하고 있을 뿐 광산구와 북구는 각각 20.9%(2만5천294호), 20.4%(3만2천913호)까지 단독주택이 감소했다. 서구의 경우 상무·급호지구 등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의 비중이 78%(7만1천509호)로 급증한 반면 단독주택은 19.7%(1만8천55호)까지 떨어졌다.

특히 광주는 향후 단독주택 감소

추세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동구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데다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도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는 현재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139곳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심 곳곳에서 추진중이며, 이들 지역에 최소 8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수완지구와 하남2지구, 선운지구 등 택지개발 단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만 4만호에 달할 만큼 아파트 신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광주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을 제외할 경우 '순수 단독'의 비중이 24%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향후 3~4년 내로 광주의 아파트 비중이 80%에 육박할 만큼 단독주택 '몰락'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애플데이' '애플 데이(10월 24일)'를 하루 앞둔 23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식품매장을 찾은 한 여성고객이 친구에게 사과를 선물하고 있다. 올해로 6번째 맞는 애플 데이는 사과라는 과일을 통해 용서를 빌고 화해하자는 취지로 지정된 날이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산업기술인력 856명 부족

주력산업중 섬유·기계·조선·전자·자동차 순

전국 산업기술인력이 수요에 비해 4.4%, 2만6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광주지역은 336명(부족율 3.6%), 전남지역은 520명(4.1%)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는 23일 24개 산업의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체 7천503개사를 대상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부족인원은 2만6천198명이며 전체 수요(59만3천780명)에 비해 4.41%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인력인 전문대졸 이상 학력의 이공계 전공자로서 사업체에 연구개발과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말한다.

산업별로는 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의 부족률이 8.31%로 가장 높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업도 7.55%의 높은 부족률을 기록했다.

또 8대 주력기간 산업의 부족률은 섬유가 5.67%로 가장 높았으며 기계(5.48%), 조선(4.44%), 전자(3.27%), 자동차(3.01%), 철강(3.0%), 화학(2.78%), 반도체(2.36%)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부족률은 대구 7.18%, 서울 6.54%, 부산 5.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3.55%, 전남 4.12%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는 전문학

사(4.67%), 학사(4.68%), 석사(2.96%), 박사(2.05%) 등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56만7천582명)은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수 345만8천458명의 16.41%를 차지했으며 이중 제조업 종사자가 37만7천602명으로 66.53%를 차지했다.

산업기술인력의 직종은 기계공학 기술자가 11.25%로 가장 많았고 전자공학 기술자(9.58%), 생산관련 관리자(6.36%) 등이 뒤를 이었다.

학력별 산업기술인력은 학사가 4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문학사는 31.88%, 석사 이상은 15.71%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91.7%를 차지했고 여성은 4만7천121명에 그쳤다.

이종욱기자 tuim@kwangju.co.kr

“중금속 오염식품 제일 두려워요”

국민들 광우병·조류독감 순으로 꼽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식품 위해요소를 두려워할까.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항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6년 일 반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위해물질에 대한 인식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복수응답)은 식품의 안전성을 해치는 위해요소

가운데 '중금속 오염'(매우 우려한다 47%, 조금 우려한다 36%)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우병'(매우 우려한다 44%, 조금 우려한다 36%), '조류독감'(매우 우려한다 44%, 조금 우려한다 35%), '환경호르몬'(매우 우려한다 39%, 조금 우려한다 36%) 등이었다. /연합뉴스

밥쌀용 수입쌀 다 팔렸다

2006년도분 3만4,429t

2006년도분 밥쌀용 수입쌀 3만4천429t이 지난 18일 모두 팔렸다.

농림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18일 공매에 부처진 중국산 쌀 100t이 전량 낙찰되면서 2006년도분 밥쌀용 수입쌀 공매가 종료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태국산은 7월 16일, 미국산은 7월 23일 공매가 완료됐다.

이처럼 중국산 쌀 판매가 미국산 쌀 및 태국산 쌀에 비해 지지부진했던 원인은 지난해보다 공매물량이 80%나 늘어난 데다 밥맛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aT 관계자는 "올해 수입된 중국산 쌀은 밥맛이 신통치 않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상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20kg 한 포대당 평균 낙찰가격은 1등급을 기준으로 미국산 쌀이 지난해에 비해 20%, 태국산 쌀은 72%나 높았지만, 중국산 쌀은 7% 올랐는데 그쳤다.

한편 농림부는 2007년도분 밥쌀용 수입쌀 4만7천928t에 대한 국별 할당 물량과 수입계획을 확정하고, 18일 국제입찰을 통해 수입업체를 선정했다. 이 쌀은 2008년 1월부터 반입이 시작돼 2월 말부터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양 수자인' 수완지구에 432세대 분양

(주)한양은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 들어서는 '한양수자인' 아파트 432세대를 선착순 분양중이다.

이번 분양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분양금의 40%에서 60%로 확대했으며, 대출 건수도 기존 1인1건에서 1인2건으로 늘리는 등 분양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또 계

약금 1천만원, 중도금 무이자 융자, 발코니확장 무료 등의 혜택을 준다. 수완지구 '한양수자인'은 타워형 아파트로 설계됐으며, 2.4m 천정과 3면 개방형 발코니 등을 도입했다. 단지가 위치한 수완지구는 140만평 규모의 친환경 생태 도시로 조성된다. 문의 062-961-8114. /최경호기자 choice@

항공사 '안전불감증' 여전

작년 과징금 1억2,000만원

지난해 국내 항공사의 '안전위반' 과징금이 1억2천여만원에 달해 '안전불감증'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위반 행위로 지난해 부과된 벌금은 총 10건에 1억2천750만원으로 2005년의 3건, 4천950만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과징금 크기 기준으로 항공사별로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4건에 9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이 5건에 3천만원, 헬기업체인 럭키항공이 1건에 250만원 순이었다. /연합뉴스

풍·수해 보험 태풍피해 보상 '특목'

가입 농어업인 미가입자보다 최고 4배 보상 받아

태풍 '나리'로 피해를 본 사유시설 가운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이 그렇지 않은 시설에 비해 최고 4배 정도 많은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풍수해보험이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 시범시·군인 경남 남해 등 31개 시·군·구에서 태풍 나리에 의한 피해로 발생

한 총 47건의 보험금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3일 발표한 나주시의 이모씨는 7월 13일 비닐하우스 3개 동(5천949㎡)에 대해 최대 보험가입액 3억1천600만원의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태풍 나리로 비닐하우스 2개 동(2천91㎡)이 전파된 데 대해 보험금 1억1천100만원을 수령했다.

이씨는 연간 보험료로 1천308만1

천원을 본인이 부담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재난지원금 2천300만원의 4배 가까운 보상금을 받은 것이다.

또 제주 서귀포시의 한모씨는 주택에 대해 보험액 1천500만원의 풍수해보험에 들어 태풍 나리로 집이 일부 망가지자 보험금 375만원을 받았다.

한씨의 연간 보험료는 7천300원이었으나 만약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민간 보험사(동부화재)에 위탁해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8~65%가 국비·지방비로 보조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암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국립경기 10일 무료이용 기회

광주지역의 유일한 컨트리 클럽